

결프전 이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가중시키는 미국의 군부 등 보수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3월6일 솔로몬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식반대 입장표명에 이어, 13일 리스카시 주한미군사령관은 미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결프전쟁이 한반도의 전쟁억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또 여전히 '잠재적 북한 군사력 위협론'을 거론했다.

### 북한 군사력 위협론

즉, 북한의 군사력을 이라크와 비교하면 서, 지상군 병력과 전투체제면에서 비슷하지만 북한의 지형은 산악지대가 많아 공중에서의 지상목표 공격을 어렵게 하여 공군력만으로 북한의 지상병력을 약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하는 등 대규모의 공군·해군력을 보유, 현재 북한 군사력은 10년 전보다 훨씬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북한의 군사력 위협론을 들먹거리는 이러한 발언이 미국정책담당자들의 입에서 오르내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별로 놀랄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리스카시 사령관의 증언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결프전쟁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부분적인 전략조정이 불가피한 반면 한국군 현대화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조정을 둘러싸고 그 반대급부로 한국군의 대대적인 전력증강을 시도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지난 한해 동안만 해도 35억달러 규모의 최신장비를 구입하여 90년도 미국 무기 최대구매국이 되었다. 적어도 북한보다 4배 이상(국방부 집계는 2배 정도)이 많은 국방예산에서 40% 정도가 전력

증강비에 소요된다고 할 때 이는 현재의 남북한 경제규모의 차이에 비추어 군사력 증강에 상대적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셈이다. 따라서 북한 군사력 위협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점차 잃어가는 형편이다.

실제 북한 군사력의 60% 정도가 50~60년대의 낙후된 장비를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신 장비만 해도 이번 결프전에서 패배한 이라크처럼 역시 소련제 무기로 갖추어져 있다. 또 최근 대부분의 보수 언론이 일제히 요란하게 보도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보유'도 이 미사일이 실전

군 현대화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한국군 현대화계획의 추진논리는 군사력증강에 의한 대북 우위 확보가 군비통제(군축)의 첫 단계라는 것에 기초해 있으며, 이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즉,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냉전이익을 고수하는 것이 미국의 이해를 전적으로 보장한다는 발상이 그것이다.

### 군 현대화계획 목적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힘의 우위'만이 미국의 이해를 확실하게 관철시키는 수단이라는 발상은 결프전 승리 이후 더욱 강해져 그간 일정하게 형성된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를 역전시켜 또다시 긴장 고조에 의한 남북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특히 이번 91년 틴스피리트

훈련시기에 북한은 남한이 군 전투태세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하

면서 지난 10년동안 실시해오지 않던 방공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대응태세를 취했다. 북한은 틴스피리트훈련이 이번 결프전에 적용된 미국의 군사작전 교리인 "대규모적 공군선제공격에 의한 적의 무력화에 이어 육·해·공 3군합동 입체작전에 의해 적을 섬멸한다"는 '공지전 독트린' 작전개념에 입각해 실시돼왔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 위협으로 간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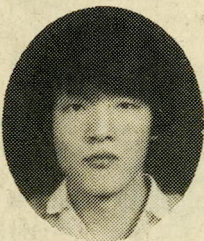
### 대화 분위기에 먹구름

결국 리스카시 사령관의 증언과 같이 미 보수파의 긴장강화 분위기와 맥을 같이하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정부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강경 일변도의 남북대화정책 분위기는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해결을 둘러싼 북한·미국대화나 남북대화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겨레사회연구소 연구원〉



## 이땅 몰아칠 군비 증강 바람



김영환

에서 최첨단 전자정보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에 거의 다 격추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작전통제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누리는 한·미 양국의 전력에 실제적 위협이 되지 못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냉전적 안보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한국